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56장 자기기만의 표적들

『산상설교』 하권 제56장, 인쇄 355~368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7:21~23

❓ 교회 일에 열심이고 신앙 지식도 많은데, 그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될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앞의 두 설교에 이어 세 번째로 자기기만을 다룬다. 이번에는 원인보다 '실제 생활의 세목', 곧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미묘한 방식을 짚는다. 출발점이 되는 원칙은 이렇다.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므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까지 자기기만의 도구로 바꿀 수 있다. 그는 이 원칙 아래 일곱 가지 위험을 차례로 점검한다. 집회와 현상과 단체, 사회적·정치적 기독교, 변증론과 신학, 예언, 성경 읽기와 설교 듣기, 은혜 교리 뒤에 숨기다. 결론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이 모든 것이 수단에 그치지 않고 목적이 되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가린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물어야 한다.

📜 절별 정리

📜 1. 왜 다시 자기 점검인가 — 선한 것도 위험해질 수 있다

로이드 존스는 자기기만을 세 번째로 다루는 이유부터 밝힌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향해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 자기 점검은 피할 수 없다. 요한이 말한 대로 주를 바라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점검 없이는 깨끗해질 수 없다. 사순절이나 새해 같은 특정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점검이 늘

원칙은 이렇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위험해질 수 있다. 모든 것이 위험하다는 말이 아니라,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해 하나님이 주신 정당하고 선한 것, 심지어 은혜의 수단까지 붙잡아 자기기만의 도구로 바꾼다. 그는 은혜의 수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한다. 또 청중이 원칙보다 예화에만 마음을 빼앗길까 염려한다며, 바울도 고린도에서 유치하게 오해받았다는 사실(고린도후서 11장의 풍자)을 위로로 든다.

1. 심판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점검한다
2. 자기 점검 없이는 자기 정결도 없다
3.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해 선한 것을 쓴다
4. 은혜의 수단도 자기기만의 도구가 될 수 있다
5. 예화보다 원칙에 집중하라

> **마태복음 7:21~23**
>
> 주의 이름으로 일한 사람도 쫓겨날 수 있다는 이 장의 본문
>
>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 **요한일서 3:3**
>
> 주를 바라는 소망이 자기 정결, 곧 자기 점검으로 이어진다는 근거
>
>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 **에베소서 6:12**
>
> 우리의 싸움이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배경
>
>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에베소서 6:11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이 대항할 길이라는 근거

>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고린도후서 11:14

마귀가 빛의 천사로 가장해 선한 것을 이용한다는 근거

>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3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함에서 떠나는 위험(본문의 “순진한 데서 떠나”가 가리키는 구절)

>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 2. 집회·현상·단체 — 주님보다 주변에 마음을 빼앗길 때

첫 번째 징조는 내 주된 관심이 집회 출석 자체에 있는 경우다. 그는 집회 출석을 좋게 여긴다. 그러나 집회로 겨우 신앙의 명맥을 잇는 사람은 집회가 끊기는 순간 자기 영혼에 메마른 땅이 있음을 처음 알게 된다. 두 번째 징조는 고양된 감정, 인도하심, 신유 같은 현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다. 이것들은 복음에 딸린 귀한 복이지만, 신앙 자체보다 신앙의 부산물에 관심을 두면 자기기만 가까이에 서게 된다. 진짜 관심사는 말에서 드러난다. 그러니 “무엇이 나의 중요한 관심사인가?”를 묻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관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지혜롭다. 세 번째 징조는 단체, 교파, 특정 교회, 운동, 친교 모임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서 무리 짓고 싶은 본능의 출구를 교회 안에서 찾기가 쉽다. 본성적으로 도덕적인 사회를 좋아할 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기독교 조직 안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여긴다. 이런 사람들은 그 교회, 그 사람들, 그 설교자 이야기에는 생기가 돌지만, 영혼과 주님 이야기가 나오면 이상하게 잠잠해진다. 본문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경우다. 그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가 아닌

1. 집회가 끊기면 드러나는 영혼의 불모지
2. 감정·인도·신유는 부산물이지 본질이 아니다
3. 관심사는 내가 하는 말에서 드러난다
4. 교회 활동이 군집 본능의 출구일 수 있다
5. 주님 이야기에 잠잠해진다면 경고 신호다

마태복음 7:21

"주여 주여" 하는 고백과 활동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

>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22

주의 이름으로 한 종교 활동조차 참 신자의 증거가 아닐 수 있음

>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태복음 7:23

문제는 활동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아시는" 관계라는 점

>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신앙 자체보다 신앙의 부산물에 큰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 3. 사회적·일반적 기독교 — '기독교 문명'과 반공주의의 함정

지도자들 가운데는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면서도 국가 문제에 '기독교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주님께 개인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독교가 막연히 쓸모 있다고 여긴다. 로이드 존스는 그들 가운데 섞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단서를 단다. '기독교 문명', '서구적 가치'를 말할 때 우리는 늘 위험한 자리에 선다. 특히 “그리스도인가 공산주의인가” 같은 구호처럼 기독교를 반공 이념 정도로 축소하는 경향을 경계한다. 로마 가톨릭이 이런 사고방식을 취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그는 말한다. 비극은 순진한 복음주의자들이 교묘하게 이 올가미에 끌려가는 것이다. 반공주의자라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틀림없다고 믿는 것은 자기기만이다. 개인적인 것을 사회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바꿔치기하는 일은 늘 위험하다. '기독교계'는 역사에서 영적 종교의 최대 적이었던 때가 많았다. 관심이 점점 사회적·정치적으로 옮겨 간다면 이미 자기 점검을 멈췄다는 표시다.

1. 개인의 신앙을 사회적 관심으로 바꿔치기
2. '기독교 문명' 담론은 늘 위험한 자리다
3. 반공주의자라고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4. 기독교계가 영적 종교의 적이 되기도 했다
5. 정치적 관심만 커지면 자기 점검이 멈춘 것

> **마태복음 7:21**
>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집단의 가치가 아니라 개인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
>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 **마태복음 7:22**
> “많은 사람”이 공적이고 외적인 업적을 내세운다는 경고
>
>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 4. 변증론과 신학 — 진리를 지키다 자기 영혼을 놓칠 때

다음 위험은 그리스도와의 참된 관계보다 변증론, 곧 신앙을 정의하고 변호하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두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설교자가 특히 정신 차려야 할 위험이라고 말한다. 이런 사람은 진화론과 심리학을 비롯해 신앙을 공격한다고 여기는 것들을 고발하는 데 모든 시간을 쓴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과 성결과 성화, 주님과의 개인적 관계는 소홀히 한다. 그는 그 활동을 자기 장부에 '의'로 적어 넣고, 정직한 자기 점검을 피하는 핑계로 삼는다. 변증과 믿음을 위한 싸움은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맞다. 그러나 그것만 하고 있다면 위험하다. 로이드 존스는 크게 쓰임받던 한 복음주의 설교자를 예로 든다. 그는 매주 로마 가톨릭과 현대주의를 공격하다가 결국 복음 전하기를 그만두었다. 학문적·이론적 신학도 마찬가지다. 그는 기독교 신학에 견줄 만한 세계관은 없으며 신학과 철학을 읽는 것만큼 흥미로운 일도 없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오히려 영혼에 가장 교묘한 유혹이 된다. 교회사를 보면 큰 부흥 뒤에 '강화(다지기)' 단계가 오고, 그것이 곧 지성 편중과 영적 메마름으로 기울곤 했다. 고전적인 예가 있다. 영국에서는 종교개혁과 청교도 시대 뒤에 불모의 지성편중주의가 1730년대 복음적 각성 때까지 이어졌다. 개혁교회와 루터교회도 비슷했다. 그는 30여 년 목회하면서 신학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지식의 자랑, 윤리적 타협, 기도의 긴박감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고백한다.

1. 신앙 변호로 자기 점검을 피할 수 있다
2. 논쟁이 복음 전파를 대신하는 비극
3. 신학은 흥미롭기에 더 교묘한 유혹이다
4. 부흥 뒤 지성 편중과 영적 메마름의 역사
5. 지식의 자랑, 타협, 기도의 식음이 신호다

> **마태복음 7: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태복음 7:23

지식과 업적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는 관계가 기준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유다서 1:3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임(로이드 존스의 표현이 이 구절을 반영함)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고린도전서 8:1

지식이 사람을 세우지 않고 '우쭐하게' 할 수 있음(본문의 '교화'와 '우쭐댐' 대비가 이 구절을 떠올리게 함)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 5. 예언과 성경 연구 — 말씀의 변두리에서 시간을 보낼 때

로이드 존스는 특히 오해받기 쉽다고 미리 말하면서, 자기기만의 가장 위험한 징조 가운데 하나로 예언적 가르침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꼽는다. 예언은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는 그것에 정통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세계정세 때문에 어떤 이들은 러시아, 이집트, 이스라엘을 에스겔 37~38장, 다니엘 7~12장과 맞춰 보며 시기를

위험은 균형 감각을 잃는 데 있다. 성경 자체도 함정이 될 수 있다. 성경을 영적 태도가 아니라 지적 태도로 대하고, 셰익스피어를 분석하듯 장을 나누고 해부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파멸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 '생명의 책'이다. 성경을 올려다보지 않고 내려다보고 있다면 급히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성경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은 사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설교자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설교 본문을 찾으려고 성경을 넘기는 순간 위험해진다. 설교를 듣는 사람도 요점만 챙기고 전문가처럼 촌평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자신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로이드 존스는 말한다. 진정한 설교는 듣는 이를 두렵고 떨리게 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한다. 비유나 성경의 숫자 연구도 좋지만, 해석의 기계적인 부분에 일생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1. 예언 계산에 몰두하면 내 영혼을 잊는다
2. 주된 위험은 균형 감각의 상실이다
3. 성경을 내려다보면 성경이 함정이 된다
4. 성경의 주인 노릇은 마귀의 지배다
5. 설교는 평가가 아니라 떨림을 낳아야 한다

> **에스겔 37~38장**
> 시사와 맞춰 계산하는 데 흔히 쓰이는 예언 본문의 예

> **다니엘 7~12장**
> 같은 방식으로 시기 계산에 쓰이는 예언 본문의 예

> **사도행전 1:7**
>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경고
>
>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 **고린도후서 11:14**
> 마귀가 빛의 천사로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용한다는 근거
>
>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진정한 설교의 효과는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해야 합니다.”

📜 6. 은혜 교리 뒤에 숨기 — 너무 빨리 자신을 치료할 때

마지막 위험은 은혜와 율법을 대립시켜 은혜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다. 은혜론 없이는 구속론도 없다. 그러나 은혜론 뒤에 그릇되게 숨어서는 안 된다. 로이드 존스는 회심했다가 다시 죄에 빠진 한 사람을 기억한다. 그는 그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죄를 고백하자마자 웃으며 “결국 은혜의 교리가 있더군요”라고 말했다. 스스로를 너무 빨리 치료하고 있었던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그가 '지나치게 건전하다'고 느꼈다. 죄에 대한 바른 반응은 깊은 회개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구원을 그렇게 쉽게 여기지 못하고, 자신이 절망적이고 악하다고 느낀다. 참으로 영적인 사람은 은혜론을 믿으면서도, 성령으로 죄를 깨달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그는 죄를 강하게 느끼지 않고 복음 설교를 듣는 그리스도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 같았다”는 반응이 바른 반응이다. 은혜로 곧장 뛰어드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비극적인 자기기만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는 것이다.

1. 은혜론 없이는 구속도 없다
2. 그러나 은혜론은 숨는 곳이 아니다
3. 죄에 대한 바른 반응은 깊은 회개다
4. 너무 빠른 자기 치료는 위험 신호다
5. 복음을 들을 때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정상이다

> **마태복음 7:21**
> 고백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요구함
>
>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판결이 은혜를 핑계로 한 무법을 경고함

>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요한일서 3:3

참 소망은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자기를 깨끗하게 함

>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 7. 마지막 질문 — 영혼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모든 점검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영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로이드 존스는 윌리엄 윌버포스의 일화를 든다. 노예제 반대 운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 평범한 부인이 그를 찾아와 영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윌버포스는 자신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거의 잊고 있었다고 답했다. 선한 대의에 몰두하다 자기 영혼을 잊는 위험을 부인이 꿰뚫어 본 것이다. 설교자도 강단일에 바빠 자기 영혼을 잊을 수 있다. 모든 집회에 나가고, 공산주의를 고발하고, 변증론을 구사하고, 신학 지식과 앞으로 50년의 조감도를 갖추고, 성경 번역본을 다 읽었더라도 물음은 남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일 년 전보다 지식은 늘었는데 주님을 더 잘 아는가, 더 사랑하는가, 더 순종하는가, 성령의 열매가 더 나타나는가? 바울은 다른 것을 다 잊고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 다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로 이끄는 수단일 뿐이다. 수단에 멈춰 서면 그 수단이 우리에게서 주님을 빼앗는다. 그는 은혜의 수단이 주님을 가리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로 마친다.

1. "영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선한 대의도 영혼을 잊게 할 수 있다
3. 지식이 늘었다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4.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수단일 뿐

마태복음 7:21

결론에서 다시 읽는 기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빌립보서 3:10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라는 바울의 본

>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갈라디아서 5:22~23

점검의 기준인 '성령의 열매'가 가리키는 구절

>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3:3

주를 향한 소망이 자기 점검과 정결로 이어짐

>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부인, 내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 오해와 반론 ⌄

📖 용어 ⌃

은혜의 수단
하나님이 신앙을 자라게 하려고 주신 통로로, 말씀, 설교, 성례, 기도, 성도의 교제 같은 것이다.

변증론
기독교 신앙이 참임을 설명하고 공격에 맞서 변호하는 일이다.

지성편중주의
신앙을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만 다루어 마음과 삶의 생명력이 메마르는 상태다.

기독교계
개인의 살아 있는 신앙과 별개로, 문화·제도·사회로서 '기독교적'인 세계를 가리킨다.

예언적 가르침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와 장래 일에 관한 가르침이다.

강화
부흥 뒤에 새 신자의 신앙을 교리로 다지고 굳히는 단계다.

성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다.

- **점검 질문** ⌄

💬 **청년의 삶으로** ⌄

✅ **이 장의 결론** ⌃

-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해 집회, 신학, 성경, 은혜 교리처럼 선한 것까지 자기기만의 도구로 바꾼다.
- 경고의 대상은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수단이 목적이 되어 주님을 가리는

- 주된 위험은 균형 감각을 잃고 신앙의 부산물이나 변두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데 있다.
- 마지막 질문은 하나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를 더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가?
-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을 목표로 삼을 때, 모든 수단이 제자리를 찾는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